

계육산업뉴스

Broiler industry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김한웅
(우 463-050)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수의과학회관 402호)
☎ (031)707-5722~4 FAX (031)707-5725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263-3598

제6권 제9호 통권63호



2000우리 축산물 브랜드전에 대한 기대

2000우리축산물 브랜드전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개최된다.

축산물 브랜드전의 개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국내 축산기반을 지켜 나가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외국산 축산물에 의해 잠식돼, 고사 직전에 있는 국내 축산기반을 축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해 지켜나가자는 의도로 그동안 우리협회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온 회원사의 닭고기 브랜드화와도 일맥상통하는 행사이다.

따라서 이번 2000우리축산물 브랜드전에는 우리협회를 비롯 (주)하림, (주)마니커, (주)해포푸드서비스, (주)체리부로식품, (주)화인코리아 등 5개 회원사가 참가,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게 된다.

우리협회의 경우 종합관에 독립부스를 마련, 10개 회원사의 대표적인 상품을 전시 홍보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내산 닭고기 시식코너를 비롯 즉석복권 배부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우리협회 소속 회원사들의 위상정립을 위해 계열화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과 육계산업이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게 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아울러 국내 육계 및 계육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돼왔던 닭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육계 계열화 사업체들의 노력도 재 평가받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같은 축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계열화 사업이 무엇인지,

계열주체가 무엇인지 정확한 실상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가와 계약사육을 하고 기업화가 된다고 하니까 일반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농가와 계열주체를 주종관계로 인식하는가 하면 일부 사람들의 경우 농민을 착취하는 것으로 오도까지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육계산업의 경우 타 축종과는 달리 80년대부터 일찍이 계열화 사업이 추진돼 왔고 그 덕분에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는 대표적인 축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현재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계열주체들은 수차례 부도의 위기를 넘겨왔고 이 와중에서 몇몇 계열주체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한 채 과거속으로 사라지기까지 했다.

우리협회가 이번 2000우리축산물 브랜드전을 통해서 계열화 사업체들의 진면목을 알리고자 하는 것은 축산물 브랜드화의 선두주자로서 국내 축산업을 이끌어온 실체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브랜드 닭고기의 안전성,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토종 축산기업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브랜드제품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협회가 브랜드전에 독립부스를 마련, 참가하는 목적이다.

2000우리축산물 브랜드전은 구제역 파동 등 축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만들어진 행사이다. 뒤늦게나마 축산물 브랜드화의 중요성이 인식돼 마련된 자리인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승화되기를 기대해 본다.